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목격 진술에 대한 고찰: 국외 아동 증언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이 승 진[†]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성폭력 및 신체 학대 등의 피해자로 수사면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외에서는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법정 진술과 관련하여 학술 연구와 현장 자료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법정 진술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사실상 관련 연구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외의 폭넓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진술 역량, 진술의 신빙성 수준 및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장애 아동의 바람직한 수사면담 시행과 올바른 아동 진술의 해석에 유용한 지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지적 장애, 발달 장애, 다운 증후군, 자폐성 장애, 윌리엄스 증후군, 아동 증언

[†] 교신저자 : 이승진,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B # 3270, Davie Hall, Chapel Hill, NC, USA, 27599-3270
Tel : 070-8227-3919, E-mail : sjmagiclif@gmail.com

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등 아동 학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 장애 아동들은 성폭력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Hesrhkowitz, Lamb, & Horowitz, 2007).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과 비교해 자신이 목격하거나 혹은 경험한 사건에 대해 수사면담 과정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추측들이 만연해 있어 장애 아동들은 재판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Hesrhkowitz et al., 2007). 이와 같은 시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목격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수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목격 진술과 관련한 국외의 실증 연구들과 현장 자료 조사들을 중심으로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수사면담시 사전에 면담자가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국내 관련 연구들의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학술 용어들을 정리해 보자면,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 아동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 따라 인지적 역량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아동을 일컫는다. 반면, 발달 장애(developmental disorder) 아동은 인지, 사회, 정서적 능력이 정상 발달 단계에 따른 성숙을 보이지 못하는 아동을 일컫는다.

한편 아동의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은 출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상의 나이이고 아동의 정신 연령(mental age)은 아동의 지능 발달 정도를 연령화한 것으로 특정 과제에서 아동의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때 생활연령이 동일한 아동과 비교되거나 정신 연령이 동일한 아동과 비교하여 평가 및 분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의 생활 연령보다는 정신 연령을 기준으로 관련 능력이 평가된다.

학술 연구에서 ‘지적 장애’는 주로 ‘학습 장애’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영국에서는 ‘학습 장애’라는 용어가 다양한 학제간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로 교육 맥락에서 ‘읽기’ 혹은 ‘수 개념’과 관련된 기초 학습 능력의 훈련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학습 장애’로 진단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그러나 본 논문은 범죄 사건들에 대한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장애 아동의 회상 능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장애’가 아닌 ‘지적 장애’라는 용어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마다 용어의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아동의 ‘생활연령’, ‘정신연령’의 의미를 앞서 언급된 정의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발달 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 아동의 특성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 발달 장애 아동의 특성들과 진술 신뢰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지적 장애 아동의 보편적 특성들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지적 장애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고찰

지적 장애는 발달 장애의 하나로 초기 아동기 장애의 대부분은 지적 장애의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지적 장애 아동은 동일 연령의 또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인지적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다. 표준화된 기준으로는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 장애로 진단되고 지적 장애 아동은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보호, 의사소통, 사회성 및 대인 관계 등과 같은 사회 적응적 기술의 습득에도 어려움이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SM-IV-TR(미국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정신 질환들의 분류)와 ICD-10(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분류)의 기준에 따르면 지능 지수 70 이하의 아동들 중 50-70 범위의 아동들은 경도, 35-49 범위의 아동들을 중증도, 25-35 범위의 아동들은 중도, 그리고 20-25 범위보다 낮은 아동들은 최중도 지적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40 이하의 지능 지수의 경우 타당한 평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로 진단된 대략 80%정도의 아동들은 독립적인 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Sullivan & Kuntson, 2000). 특히 경미한 수준의 지적 장애 아동들은 아동 발달에 요구되는 사회적 자원들을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에 필요한 적응적 기술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지적 장애가 지닌 한계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한다(Sullivan & Kuntson, 2000).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취학 전 지적 장애 아동의 경우 학대나 폭력과 같은 범죄 사건들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 또래 아동에 비해 2-4배 정도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 아동들은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열악한 생활환경이 유발하는 성폭력 및 신체 학대의 피해 사례들을 목격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다(Milne, 2000).

설상가상으로, 지적 장애 아동의 지속적인 증가는 학대의 심각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Lamb, & Horowitz,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관련된 교육이나 법적,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Lin, Yen, Kuo, Wu, & Lin 2009).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 아동의 피해는 신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높으며 신고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기소되거나 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Sharp, 2001). 한편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지적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동 범죄 혐의자 162명의 지능 지수를 살펴보았더니 평균 지능 지수가 82(최저: 61, 최상: 131), 70보다 낮은 경우가 7%, 75보다 낮은 경우가 전체의 1/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udjonsson, Clare, Rutter, & Pearse, 1993). 가해자 및 피해자가 지적 장애일 확률이 높을수록 수사면담을 담당하는 면담자는 지적 장애 아동의 특성에 대한 총괄적 지식이 요구될 것이다(Barron, Hassiotis, & Banes, 2004).

지적 장애 아동들은 정보의 부호화, 저장, 인출에 필요한 기초적 역량이 부족하여 면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적 장애 아동의 회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aywitz, 2002). 지적 장애 아동이 정상 또래 아동에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Brown & Geiselman, 1990). 그러나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아동들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범죄사건에 대해 신뢰로운 회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하고 획득된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는 지적 장애 수준 이외에도 아동의 사회-환경적, 정서적, 동기적 개인차 특성들이 다각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Plotnikoff & Woolfson, 2004).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 장애 아동들은 특수 학교 혹은 일반 학교의 특수 프로그램에 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아동들로 표준화된 지능 평가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 이외에도 학습 장애를 진단받았거나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달 장애(예: 다운 신드롬, 윌리엄 신드롬, 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들도 포함한다. 발달 장애 중에서 다운 신드롬과 윌리엄 신드롬은 대부분 지적 장애를 동반한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의 경우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는 약 50-8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능 지수는 지적 장애 아동의 사회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세부 정보들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발달 장애 아동의 지능 점수가 지적 장애 아동의 지능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하더라도 발달 장애 아동의 진술 특성은 지적 장애 아동의 진술 특성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할 경우 각 아동의 인지적 역량과 세부 발달적 특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아동수사면담지침(영국내무부, 2007)의 대표적인 장점은 범죄 사건의 목격에 의한 불안이나 공포를 호소하는 아동 목격자들의 정서적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대면하는

불편한 상황과 법정의 경직된 환경이 유발하는 공포를 완화 시켜주기 위해 아동의 목격 진술을 녹화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방안 혹은 CCTV 생중계(live link)로 법정에서 변호사와 반대신문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17세 이하의 모든 목격자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률적 제도로 지적 장애 혹은 발달 장애 아동 이외에도 학습 장애 아동,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 성폭행 경험에 의한 공포나 불안 등 심리적,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아동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사면담 혹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적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은 생활 연령 혹은 정신 연령이 동일한 아동들이 특정 사건, 사람, 장소에 대해 어느 정도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요구된다.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들은 정상 발달 단계의 아동과 유사한 발달 패턴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면담자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한편 일부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의 수준이 동일한 정신 연령의 아동과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발달이 다소 늦은 장애 아동들은 대상으로 하는 수사면담시 면담자는 그 아동의 생활 연령보다는 정신 연령에 따른 의사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적 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격 진술에 관한 연구들은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보다 더 부족하다. 현장 자료 조사에 의하면 지적 장애 성인들은 법정에서

선서를 위해 오른손을 들고 주어진 지문을 읽는 것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Gudjonsoon, Murphy, & Clare, 2000).

또한 지적 장애 성인들은 일반 성인들보다도 환경적 요인들이나 상대방의 권위 혹은 의견에 전적으로 순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자신의 진술에 따른 법적 결과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Gudjonsoon et al., 2000).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면담자 혹은 변호사의 질문이 지적 장애의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들도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실에 대한 신뢰로운 회상이 가능하며 사건의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ricson & Isaacs, 2003).

요약하면, 다운 증후군이나 윌리엄 증후군과 같은 발달 장애들은 지적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폐성 장애와 같이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장애들도 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지적 장애보다도 사회 부조화 증상들을 보다 많이 보이는데 이 역시 지적 장애만큼이나 수사면담의 구성과 면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보이는 복합성 장애 증상을 보이는 아동도 있다.

이들의 증후는 독립된 증상들이 갖는 한계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시행하는 경우 면담자들은 사전에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장애에 대한 보편적 증후들을 숙지함과 동시에 각 아동의 개별 특성과 그에 따른 한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 장애 아동의 진술 특성에 관한 고찰

지난 20여년에 걸쳐 수많은 학술 연구들은 일반 아동이 범죄 사건의 목격자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증거 자료들을 제시해 왔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술 연구자의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계된 사건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그 사건을 목격한 후 그 경험에 대한 아동의 회상과 면담자의 유도질문에 대한 아동의 피암시성 정도 등이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 첫째,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의 형태는 아동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보자’와 같은 형태의 질문이다. 둘째, ‘폐쇄형 질문(closed question)’ 형태는 개방형 질문 다음 추가적 서술이 요구될 때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무엇이었니’와 같은 형태의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선택형 질문(yes-no question)’은 제시된 응답들 중에서 아동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형식이다. 경험적 연구들은 연령에 따른 아동의 피암시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선택형 질문’들을 이용해 왔다(예: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지? 그렇지?). 그러나 실제 아동이 연루된 범죄 사건들은 면담자가 수사사건에 대한 정보와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도적 혹은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선택형 형태의 질문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학술 연구자들은 질문 유형에 따른 지적 장애 아동의 반응에 관심을 보여 왔다. 고전적인 연구인 Dent(1986)에서는 지능 지수가 49-70에 해당되는 8-11세의 아동 3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 유형들을 포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에 대한 반응 수준이 낮고 폐쇄형 질문에 대한 반응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적 장애 아동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반응 정도는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지만 보고된 정보의 94% 혹은 그 이상이 매우 신뢰로운 정보인 것으로 검증되었다(Henry & Gudjonsson, 2004). 한편, Dent(1986)의 연구는 대조군이 없어 지적 장애 아동의 기억 수행이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 혹은 동일한 정신 연령 아동과 비교,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후 Henry와 Gudjonsson (1999)은 11-12세의 지적 장애 아동의 기억 수행과(평균 지능 지수: 60, 범위: 40-78, 평균 정신 연령: 7세) 동일한 정신 연령 및 동일한 생활 연령 아동의 수행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선행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지적 장애 아동은 동일한 생활 연령의 정상 아동들보다 개방형 질문에 의한 응답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폐쇄형과 선택형 질문에는 지적 장애 아동도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과 유사한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선택형 질문에(예: 그 남자가 너한테 인사를 했지 그렇지 않니? 실제로 그 남자가 인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적 장애 아동은 동일한

생활 연령의 일반 아동만큼 정확한 응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한편 동일한 정신 연령의 아동들과 유사한 수준의 응답 정확성을 보였다. 이는 지적 장애 아동은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에는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으나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선택형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를 보인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한편, Henry와 Gudjonsson (2003)은 중증도의 지적 장애 아동이 경도의 지적 장애 아동보다 저조한 진술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도의 11-12세 지적 장애 아동(평균 지능 지수 평균 66, 범위: 55-79, 평균 정신 연령: 8세)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성과 피암시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경도의 지적 장애 아동이 개방형 질문과 일반형 질문에 다소 저조한 응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중증도 지적 장애 아동 11-12세는(평균 지능 지수: 46, 범위: 40-54, 평균 정신 연령: 6세) 동일한 생활 연령 아동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질문의 형태에서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동일한 정신 연령의 아동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도 지적 장애 아동의 목격 진술 역량은 동일한 정신 연령의 아동을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Henry와 Gudjonsson(2003)의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 장애 아동과 중증도 지적 장애 아동 모두가 지니고 있는 특성도 발견되었다. 2주 후 실시된 면담에서 아동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선택형 질문에서 아동의 이전 응답이 정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변경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적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일

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선택형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아동들은 이전의 응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Poole & White, 1993). 유사한 연구로 최근에 국외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아동 중 지적 장애 아동의 수사면담 사례를 따로 분석해 보았다. 이 중 일부 아동들은 자폐성 장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혼합된 자료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선택형 질문의 9%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고 이 선택형 질문에 지적 장애 아동의 40% 정도가 자신의 이전 응답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Cederborg, Daniclesson, La Rooy, & Lamb, 2009). 비록 통계적인 수치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이와 같은 높은 응답 수정 비율은 심각한 사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9-14세의 지적 장애 아동들은(평균 지능 지수 58, 표준편차 15, 평균 정신 연령 6.5세, 평균 생활 연령 11.5세) 비록 동일한 생활 연령 아동의 수준보다는 저조하지만 꽤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chel, Gordon, Ornstein, & Simpson, 2000). 한편 지적 장애의 10세 아동들이(평균 지능 지수 63, 범위 47-77, 평균 정신연령 6.5세) 동일한 정신 연령의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회상 정확도와 피암시성을 보여주었다(Jens, Gordon, & Shaddock, 1990). Gordon, Jens, Hollings와 Watson(1994) 연구에서도 10세 아동들(지능지수 평균 57, 범위는 보고되지 않음, 정신 연령 6.5세)을 대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지적 장애 아동들도 동일한 정신 연령 아동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의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Agnew와 Powell(2004) 연구는 9-12세 지적 장애 아동들은 대상으로 아동이 직접 참여한 마술쇼에 대해 아동의 회상 진술을 평가해 보았다. 참여 아동들은 동일한 정신 연령의 아동들보다 선택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경도(평균 지능 지수 63, 범위 56-75) 및 중증도 지적 장애 아동들은(지능 지수 55 보다 낮은 아동 그러나 55 보다 낮은 경우는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음을 유의) 일반 아동들보다 사건 회상에 필요한 특정 단서들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지적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적 한계 및 정보 처리 능력의 미성숙으로 설명하고 있다(Agnew & Powell, 2004). 그러나 이 자료에서도 지적 장애 아동들은 동일한 정신 연령과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들보다 높은 피암시성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적 장애 아동이 진술한 정보의 절반 이상이 법정에서 실증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Agnew & Powell, 2004). 한편,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에서 활용된 사건들은 실제 수사 사건들의 본질적인 특성들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장애 아동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는 낮은 성인이기 보다는 피해자 아동과 혈연관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특히 아동이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높을수록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아동 진술의 양은 감소할 수 있다(Hershkovitz et al., 2007). 또한 법정의 경직되고 낮은 환경도 지적 장애 아동의 진술양과 진술 내용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지적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성인의 경우 법적

용어에 대한 지식이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특히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지적 장애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없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cson & Perlman, 2001). 설상가상으로 판사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bbell, Hatton, & Johnson, 2004). 따라서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이 실시되는 경우 면담자의 질문 구조 및 형태, 획득된 아동 진술에 대한 해석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학술 연구자들은 지적 장애 아동들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해 신뢰로운 진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 진술의 신뢰성은 표준화된 아동수사면담의 지침에 따라 면담이 실시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Lamb et al., 2008).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Agnew, Powell와 Snow(2006)은 9-13세 연령의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지능 지수 75이하, 그러나 지능 지수는 55 이하의 경우 측정되지 않음) 연구자가 설계한 특정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을 실제 표준화된 수사면담 형식을 사용하여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면담자들의 암시적 정보 혹은 반복적 질문에 따른 아동 진술의 오류가 증가하였고 수사면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 아동 수사면담에서 중요시 하는 사항들은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면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적 장애 아동의 수사면담에서는 질문의 순서가 특히 중요하다. 면담자는 자유 회상 형태의 ‘개방형’ 질문을 가장 먼저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을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을 제시하며 ‘선택형’ 질문을 가장 마지막에 제시해야 한다. 지적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들보다도 선택형 질문에 유도되는 경향 혹은 면담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택형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 지적 장애 아동은 자신의 이전 응답을 변경할 확률이 일반 아동들보다도 높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선택형 질문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적 장애 아동의 수사면담시 아동의 의사소통적, 인지적 발달 수준에 맞게 질문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면담자의 질문은 전문적 용어나 추상적인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각 질문은 짧고 간결한 정보 즉 한 가지 요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지적 장애 아동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특히 이중 부정 구문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Henry & Winfield, 2010). 따라서 지적 장애 혹은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 아동의 수사면담보다 면담 질문을 아동 발달 수준에 맞게 검토 및 수정하는 사전 준비 과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 친화경적 요소들, 정서적 지지 정도, 아동의 주의 집중 수준 등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 언어 장애 이외에 특이한 의사소통적 장애가 있는지, 아동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특정 어휘가 있는지 등을 파악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적 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들처럼 성인인 면담자가 수사사건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당위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자보다 아동 본인이 수사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발달 수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동과 적절한 라포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 아동에게 친숙한 중재자의 착석이 권유될 필요가 있다. 이 중재자는 수사면담 과정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 및 판사와의 면담 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면담자 및 모든 법조계 실무자들은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느린 정보 처리의 속도를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Anderson, 200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법 제도는 목격자와 피고자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주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의 제시를 허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률적 재판 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 삶의 안녕과 안전한 환경 보장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외 법조계는 치명적인 범죄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스트레스나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이미 충분히 경험한 아동에게 재판 절차를 통해 또 다른 이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방대한 학술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정상 발달 단계의 아동들도 장황하고 다소 공격적일 수 있는 피고측 변호사의 반대신문시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Zajac & Hayne, 2003). 또한 아동의 긴장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록 반대신문시 이전 응답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응답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yon & Saywitz, 1999). 한편 Lyon와 Saywitz (1999)은 학대 혹은 방임 피해 아동 96명을 대상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5세 아동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아동들 역시 사전 응답을 변경하는 경향으로 인해 결국 오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법정이나 수사면담의 경직되고 낮은 상황이 주는 불안과 변호사 및 판사의 권위적인 존재에 대한 위협이 아동으로 하여금 이전 응답의 변경을 유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Lyon & Saywitz, 1999). 또한 아동들은 성인들보다 피암시성이 높고, 법정에서 제공되는 복잡한 어휘와 구조의 질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도 질문의 의미를 되묻기 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응답을 제공하려는 동기에서 초래되는 오류들도 있다. 실제 법정 아동 진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7세 아동의 75%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응답은 자신의 이전 응답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Zajac, Gross, & Hayne, 2003). 이처럼 지적 장애 아동들도 일반 아동과 유사하게 다양한 사회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진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장애 아동들은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 및 정신 연령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법정과 같은 낮은 상황에서 보다 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ry & Gudjonsson, 2003). 한편 일반 아동의 경우도 동일한 정신 연령의 지적 장애 아동만큼 변호사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요점 질문(사건의 주요 의미와 관련된 질문) 혹은 축약적 질문(사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에 대

한 질문) 모두에서 자신의 이전 응답을 변경하려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한편 취학 아동의 경우 지적 장애 수준과 무관하게 반대신문 과정에서 아동의 사전 응답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관된 경향성이 발견 되었다(Bettenay, 2010).

결론적으로, 지적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사고와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 장애 아동의 대표적인 특성은 낮은 지능 점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일반 지적 장애 아동은 자신이 목격한 혹은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주요 정보들의 회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적 장애 아동의 회상 진술 가능성은 생활 연령이 아닌 동일한 정신 연령의 아동의 수준을 기준으로 예측되어야 하지만 지적 장애 아동들 사이에서도 진술 역량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지적 장애 아동은 수사면담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중재자의 착석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발달장애 유형에 따른 진술 특성 고찰

앞서 살펴 본 지적 장애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진술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 장애 아동, 그 중에서도 다운 증후군, 자폐성 장애, 윌리엄스 증후군 아동의 목격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다운 증후군(Down Syndrome) 아동의 진술 특성

지적 장애 아동의 수사면담시 주의할 사항

들은 다운 증후군(이하 DS) 아동의 수사면담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DS 아동의 수사면담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DS 아동의 진술 능력에 대한 학술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편이지만 DS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능력에 대한 기존의 지식들을 응용해 보면 수사면담자들이 사전에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DS 아동들은 비언어적 과제보다 언어적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을 보인다(Chapman, Seung, Schwartz, & Kay-Raining Bird, 1998). 또한 DS 아동의 표현적 언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적 자료보다 시각적, 공간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사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구어적 표현 보다는 아동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하여 아동의 회상을 도울 수 있다. 전반적으로 DS 아동의 의사소통 수준은 그들의 언어적 이해 능력에 비해 다소 낮다. 특히 수용적(receptive) 언어 능력은 동일 생활 연령의 아동들보다 현저하게 낮다(Chapman et al., 1998). 따라서 DS 아동의 수사면담시 면담자들은 최대한 간결한 어휘를 사용하고 긴 단어나 복잡한 문장 구조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보통 DS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부족 이외에도 청각 장애도 보이기 때문에 면담자들은 사전에 DS 아동의 청각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DS 아동들은 표현적 언어 능력이 낮아 면담자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반응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아동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중재자의 착석이 요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재자의 착석은 DS 아동과의 수사면담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진

술의 오해석을 방지하고 면담자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DS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매우 짧은 문장들로 대화를 이어간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현적 언어 능력 결여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Chapman et al., 1998). 따라서 DS 아동의 수사면담은 일반 아동들보다 면담 시간뿐만 아니라 사전에 면담 질문들을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게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면담 과정에서 면담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아동의 진술 동기를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한편, DS는 진단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증도 장애인 아동의 경우 수사면담의 맥락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S 목격자 아동은 자신이 범죄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로서 수사면담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찰서 혹은 법정에서 참석하는 것 자체로 심한 불안과 긴장을 호소하여 면담자와의 의사소통시 무조건적인 회피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수사면담이 시작되기 이전에 면담 환경에 대한 설명, 아동이 면담에 참여하는 이유, 범죄사건에 아동은 직접 연루된 것이 아니므로 진술에 따른 어떤 피해도 아동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사면담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되풀이하여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DS 아동은 경도에서 중도 범위의 지적 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보인다. 그 이외에도 DS 아동은 청각 장애와 언어, 운동성 장애를 보일 수 있다. 또한 DS 아동은 표현적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면담시 중재자의 동반이 권장되어야 한다. 단기 기억의 부족도 DS 아동의 보편적 특징임을 고려할 때 면담 질문은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DS 아동들은 비언어적인 기술과 수용적 언어 능력이 표현적 언어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이는 DS 아동들이 구어적으로 표현하는 수준 보다는 우수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면담자들은 아동의 회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와 같은 비언어적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DS 아동들의 경우 수사면담시 진술에 대한 아동의 내적 동기가 자극될 수 있도록 면담자는 지속적 격려와 풍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아동의 진술 특성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이하 ASD) 역시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적 장애 아동의 수사면담시 주의할 사항들은 ASD 아동의 수사면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ASD 아동의 차별화된 특성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성들과 ASD 아동의 기억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ASD 아동의 기억 수행을 살펴보면 ASD 아동들은 추상적 의미나 정보, 요점적 정보의 회상에 어려움이 있다(Webb, 2008). 한편, 일부 ASD 아동들은 특정 분야에 매우 우수한 기억력 심지어 ‘석학’ 수준의 뛰어난 기억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억 능력은 특정 분야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수사면담 맥락 즉, 최근에 아동에게 일어난 일이나 과거에 경험한 일에 대한 회상 진술과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ASD 아동들은 특히 대인 관계 형성 기술이 부족하고 자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거나 주관적 관점에서 특정 정보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Jordan, 2008). 또한 ASD 아동들은 친숙한 사람들의 얼굴 혹은 목소리에 대한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 따라서 친숙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에도 낯선 사람이나 목소리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Webb, 2008). 관련 선행 연구들 중에서 MaCrory, Henry 와 Heppe (2007)은 ASD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서전적 기억 (autobiographical memory)과 목격 진술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11-14세의 아스퍼거 장애(asperger disorder) 아동의 기억과 암시성을 살펴보았다. 이 아동들은 언어적 장애나 지적 장애는 없지만 사회적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고 아동의 관심과 활동 분야가 특별한 것들에 한정되어 있어 융통성이 없는 행동적 특성들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목격 진술의 신뢰성과 면담자의 유도신문에 대한 피암시성 수준은 동일한 생활 연령의 아동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Crory et al., 2007). 그러나 아주 미묘한 차이들로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은 회상 진술에 있어서 사회적 정보나 사건의 주요 요지와 관련된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Bruck, London, Landa 와 Goodman (2007)은 아동이 참여한 마술쇼에 대한 회상과 아동의 지난 5년간의 사건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지능 지수가 평균 범위에서 높은 ASD 아동을 중심으로 자료가 분석되었고 그 결과 ASD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진술량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SD 아동들은 회상 정보를 지어내거나 왜곡하는 오류들은 보이지 않고 단지 다소 낮은 수준의 회상을 보였다 (Bruck et al., 2007). 이는 ASD 아동들이 사회적 대인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검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낯선 면담자와의 의사소통이 ASD 아동들의 경우 보다 어렵고 따라서 회상 진술의 절대적인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ASD의 특징만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ASD와 지적 장애를 모두 보이는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요점적 정보의 회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SD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특별한 정보들을 기억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ASD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Baron-Cohen (2002)는 ASD 아동의 회상 역량을 빗대어 사회적 대인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치밀하고 세밀한 시야가 큰 이점이 되지 않지만 수학, 수리, 범주, 목록, 음악, 언어학, 공예, 공학, 혹은 과학 분야에는 그와 같은 첨예한 시야가 장애라기보다는 대단한 성공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수사면담 맥락에서 ASD 아동들의 특징을 고찰해 보면 ASD 아동들은 피암시성이 높아 면담자의 유도성 질문이나 거짓 정보에 의한 오정보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ASD 아동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맥을 통한 은유나 암시 등의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표현이 포함된 질문들은 ASD 아동에게 혼동과 불안만 가중시켜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ASD의 증후들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ASD 아동에 관한 특성들이 지나치게 일반화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경도의 ASD 아동들은 단순히 사회적 기술이 조금 부족한 정도에 불과할 수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중증도의 ASD 아동들은 언어 사용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완전히 불가능하며 의사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특정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과 같은 반향 언어는 자폐성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 중 언어 발달 늦은 경우 보이는 보편적 증상의 하나이다(Durand, 2005). 반면, ASD 아동들은 의사소통의 중간에 갑자기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따라하는 증상이 있다. 이와 같은 ASD 아동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ASD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할 경우 말하기와 언어 치료에 대한 자격이 갖추어 있는 전문가의 동반이 필요할 것이다(Bruck et al., 2007).

요약하면, ASD 아동들은 사회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매우 제한된 흥미와 융통성이 결여된 특성을 갖고 있다. 지적 장애 아동의 50-80% 정도가 ASD 아동의 증후를 보이는데 ASD 증후의 심각성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 아동의 기억 능력을 전체 ASD 아동의 기억 능력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이나 지적 장애 아동들은 심각한 언어 장애를 보이지 않으나 대인 관계적, 행동적 장애들은 여전히 보일 수 있다. ASD 아동에게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력의 부족, 언어 발달의 지연, 독특한 대인 관계적 기술들은 수사면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

어 능력에 한계가 있는 ASD 아동의 경우 중재자의 동반이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ASD 아동들은 사건에 대한 요점적 정보에 대한 회상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회상에 취약하지만 때로는 매우 세부적인 특정 정보들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ASD 아동들은 친숙한 사람의 얼굴 혹은 목소리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ASD 아동들은 ‘암시적’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면담자의 거짓 혹은 유도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SD 아동이 지닌 인지적, 사회적 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신뢰로운 목격 진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열거한 ASD 아동들의 장단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된 후 수사면담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윌리엄스 증후군(Williams Syndrome) 아동의 진술 특성

윌리엄스 증후군 아동(이하 WS)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WS 아동 면담도 지적 장애 아동의 면담의 주의 사항들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한다. WS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능력에 대한 학술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사면담 맥락에서 WS 아동의 목격 진술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WS 아동의 인지 능력은 DS 아동들과 대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WS 아동의 언어적 정보에 대한 기억은 공간적 정보에 대한 기억보다 우수하다(Jarrold, Baddeley, & Hewes, 1999). 따라서 WS 아동은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건에 대한 시각적 혹은 공간적 정보들보다 언어적 정보들을 더 잘 회

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S 아동들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위치나 사물에 대한 정보보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어떤 내용의 의사소통이 오고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한편, WS 아동들은 공간적 배치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특정 공간적 정보를 과대 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다(Bellugi, Lichtenberger, Jones, Lai, & St George, 2000).

WS 아동들은 다른 장애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숙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담자는 WS의 능력을 과신해선 안 된다. WS 아동의 부모들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WS 아동은 다른 장애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WS 아동들의 사회성 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일반 아동들처럼 WS 아동들도 수사면담 상황 즉, 낯선 면담실이나 법정의 경직된 환경에서 매우 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WS 아동들은 ASD 아동들처럼 매우 특별하고 제한된 사항들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사면담 맥락에서 특정된 사항에 아동의 관심이 집중되어 더 이상 다른 정보들의 회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WS 아동의 특성과 유사하게 언어적인 부분에서 억제 및 자기 조절의 어려움과 특정 사항에 대한 편중된 관심과 지나친 집중은 한 가지 정보에 대해 장황한 진술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들은 수사면담 맥락에서 유용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Porter Coltheart, & Langdon., 2007). 따라서 면담자는 아동이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형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과정에서도 기회가 되면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아동들로 하여금 특정 정보에 대한 장황한 응답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자신의 반응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구조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부 WS 아동들은 사고성이 매우 뛰어나 아동이 오히려 면담자에게 수사사건과 무관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는 면담자와 아동의 라포 구축과 아동의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면담자는 아동이 이 수사면담에 참여하는 이유,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들의 형태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한편, 면담의 적극적 참여와 진술 동기는 아동으로 하여금 면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WS 아동이 경우에도 수사면담시 의사소통의 오해를 막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면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재자의 동반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WS 아동들은 경중에서 중증도 지적 장애 아동으로 간주되며, 기억 역량에서는 균등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우수한 언어적 능력과 달리 비언어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아동들과 비교해 다소 떨어지는 능력을 보인다. 따라서 WS 아동들은 수사면담시 시각적 혹은 공간적 자료들보다 언어적 자료들을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 WS 아동들은 특히 사람 얼굴에 대한 회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WS 아동들은 사회적이고 말이 많고, 동정적이며 거리낌이 없다고 기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수사면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형식적이고 경직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오

히려 더 심한 불안을 유도할 수 있다. WS 아동들은 과다활동으로 인해 면담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WS 아동의 언어적 강점 및 사회적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WS 아동의 회상 능력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고 따라서 전문가들은 WS 아동들에 대한 회상 능력을 과신할 수 있다. 또한 WS 아동들은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고, 수사사건과 관계없는 정보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면담이 진행되기 위해서 WS 아동들의 수사면담에서도 중재자들의 착석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면담 전문가 혹은 현장의 실무자들은 표면적으로 우수한 WS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실제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과 구체적인 진술 역량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체논의 및 제언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목격한 혹은 경험한 범죄 사건들에 대한 회상 진술을 위해 직접 법정에서 서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또한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의 목격 진술의 신뢰성에 관한 학술 연구들과 현장 자료 조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적 장애 아동들도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따르는 또래 아동들과 유사한 수준의 회상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Henry & Gudjonsson, 2003). 또한 법정의 반대신문에서도 지적 장애 아동들은 또래의 아동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암시적 질문에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tenay, 2010). 이와 같은 학

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논문은 지적 장애 및 특수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면담시 면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사면담자들은 아동의 지적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발달 장애가 임상적으로 진단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면담의 형태, 면담 진행의 속도, 질문의 구조를 결정하고 어떤 부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적 장애 아동들은 보통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재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면담자들은 무엇보다도 지적 장애 사실만으로 다른 역량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NICHD(미국국립아동인간발달 연구소) 아동수사면담지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침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우선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반복된 질문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 지적 장애 아동과 특수 발달 장애 아동들은 동일한 지능 점수를 보이는 경우에도 인지적 역량과 한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각 아동의 인지적, 사회 행동적 개인차에 특성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면담자는 가능한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고 유도 질문을 피하고, 아동의 독특한 반응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면담자들은 아동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능한 통제하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고 명확한 질문들만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면담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다(Henry, & Gudjonsson, 2003, 2004).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목격 진술 맥락에서 지적 장애 및 특수 발달 장애를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시발점으로 국내에서도 수사면담 맥락에서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 아동의 특성, 진술 역량 및 한계들에 대한 관심이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지식과 현장에서 지적 장애 아동들을 수차례 면담해 온 실무자들의 전문적 조언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gnew, S. E. & Powell, M. P. (2004). 'The effect of intellectual disability on children's recall of an event across different question types'. *Law and Human Behavior*, 28(3), 273-294.
- Agnew, S. E., Powell, M. B., & Snow, P. C. (2006). An examination of the questioning styles of police officers and caregivers when interviewing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egal & Criminological Psychology*, 11(1), 35-5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nd, text revised). Washington, DC. APA.
- Anderson, M. (2001). 'Annotation: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3), 287-298.
- Baron-Cohen, S. (2002). "Is Asperger syndrome necessarily viewed as a disability?". *Focus Autism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3), 186 - 191.
- Barron, P., Hassiotis, A., & Banes, J. (2004). Offend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8, 69-76.
- Bellugi, U., Lichtenberger, L., Jones, W., Lai, Z., & St George. M. (2000). The neurocognitive profile of Williams syndrome: A complex pattern of strengths and weaknesse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2(1), 7-29.
- Bettenay, C. (2010). *Memory of children under cross-examination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UK.
- Brown, C. L., & Geiselman, R. E. (1990). Eyewitness testimony of mentally retarded: Effect of the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6, 14-21.
- Bruck, M., London, K., Landa, B., & Goodman, J. (2007). Autobiographical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children with autis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73 - 95.
- Cederborg, A-C., Danielsson, H., La Rooy, D., & Lamb, M. (2009). Repetition of contaminating question types when children and youth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interviewed.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3, 440-449.
- Chapman, R., Seung, H-K., Schwartz, S. E., & Kay-Raining Bird, E. (1998). Language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own syndrome: II. Production deficits. *Journal of*

-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4), 861-873.
- Dahle, A. J., & McCollister, F. P. (1986). Hearing and ontologic disorders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0, 636-642.
- Dent, H. R. (1986).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echniques of questioning mentally handicapped child witness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13-17.
- Durand, V. M. (2005). Past, Present, and Emerging Directions in Education, In D. Zager (Eds.) *Autism Spectrum Disorders: Identification, Education, and Treatment* (3rd Edn., pp.89-109). Hillsdale, NJ; Erlbaum.
- Ellis, N. R. (1969). A behavioral research strategy in mental retardation: defense and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3, 557-566.
- Emerson, E., Hatton, C., Felce, D., & Murphy, G. (2001). *Learning Disabilities: The Fundamental Facts*. London: The Foundation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 Ericson K., & Isaacs B. (2003). Eyewitness identification accuracy: a comparison of adults with and those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41, 161-173.
- Ericson, K., & Perlman, N., (2001). Knowledge of legal terminology and court proceedings i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aw and Human Behavior*, 25(5), 529-545.
- Gudjonsson, G. H., Clare, I. C. H., Rutter, S., & Pearse, J. (1993). Persons at risk during interviews whilst in police custody: The identification of vulnerabilities. *Royal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Research Study No. 12*, HMSO, London.
- Gudjonsson, G. H., & Gunn, J. (1982) The competence and reliability of a witness in a criminal cour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1, 624-627.
- Henry, L. A., & Gudjonsson, G. H. (2003). Eyewitness memory, suggestibility, and repeated recall sessions in children with mild and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ies. *Law and Human Behavior*, 27, 481-505.
- Henry, L. A., & Gudjonsson, G. H. (2004). The effects of memory trace strength on eyewitness recall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9, 53-71.
- Henry, L. A., & Winfield, J. (2010). Working memory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4), 354-365.
- Hershkowitz, I., Lamb, M. E., & Horowitz, D. (2007). Victimiz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4), 629-635.
- Home Office. (2007).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Using Special Measures*. London: Home Office.
- Jarrold, C., Baddeley, A. D., & Hewes, A. K. (1999). Genetically dissociated components of working memory: evidence from Down's and Williams syndrome. *Neuropsychologia*, 37, 637-651.
- Jens, K., Gordon, B., & Shaddock, A. (1990).

- Remembering activities performed versus imagined: A comparison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children with norm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37, 201-213.
- Jordan, R. (2008). Practical implications. In J. Boucher & D. Bowler (Eds.) *Memory in Aut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ibell, M. R., Hatton, C., & Johnson, S. D. (2004) Witness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court: What questions are asked and what influence do they have?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23 - 35.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West Sussex, UK: Wiley.
- Lin, L. P., Yen, C. F., Kuo, F. Y., Wu, J. L., & Lin, J. D. (2009). Sexual assaul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sults of a 2002-2007 national report in Taiwan.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 969-975.
- Lyon, T. D., & Saywitz, K. J. (1999). Young maltreated children's competence to take the oath.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16-27.
- MacNeil, B., Lopes, V. & Minnes, P. (2009).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3, 1-21.
- McCrary, E., Henry, L., & Happe, F. (2007) Eyewitnes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482-489.
- Michel, M. K., Gordon, B. N., Ornstein, P. A., & Simpson, M. A. (2000). The abilitie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to remember personal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testimon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453-463.
- Milne, R. (2000). Interviewing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A. Memon & R. Bull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interviewing* (pp.165-180). Chichester, West Sussex, UK: Wiley.
- Plotnikoff, J., & Woolfson, R. (2004) *In their own words: the experiences of 50 young witnesses in criminal proceedings*. London: NSPCC.
- Poole, D. A., & White, L. T. (1991). Effects of question repetition on the eyewitness testimony of children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975-986.
- Porter, M. A., Coltheart, M., & Langdon, R. (2007). The neuropsychological basis of hypersociability in Williams and Down syndrome. *Neuropsychologia*, 45(12), 2839-2849.
- Saywitz, K. J. (2002). Developmental underpinnings of children's testimony. In H. L. Westcott, G. M. Davies, & R. H. C. Bull (Eds.) *Children's Testimony*. New York: Wiley.
- Sharp, H. (2001) Challenging crime and harassment against people with learning difficulties. *Mental Health Care & Learning Disabilities*, 4(2) 398-400.
- Sullivan, P., & Knutson, J. (2000).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24(10), 1257-1273.
- Volkmar, F., & Dykens, E. M. (2002). Mental retardation. In Lewis, M. (Eds.), *Child and*

- Adolescent Psychiatry: A Comprehensive Textbook, 3rd Edition.*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Webb, S. J. (2008). Impairments in social memory in Autism? Evidence from behavior and Neuroimaging. In J. Boucher & D. Bowler (Eds.) *Memory in Autism: Theory & Evidence* (pp.188-2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 Zajac, R., Gross, J., & Hayne, H. (2003). Asked and answered: Questioning children in the courtroom.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0*, 199-209.
- Zajac, R., & Hayne, H. (2003). The effect of cross-examination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9*, 187-195.
- Zigler, E. (1969). Developmental versus difference theories of mental retardation and the problem of motiv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3*, 536-56.
- 1 차원고접수 : 2012. 05. 23.
심사통과접수 : 2012. 08. 02.
최종원고접수 : 2012. 08. 06.

Understanding of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Seungjin Le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hildren with intellectual and/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more vulnerable to abuse and maltreatment than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 and yet their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rare. Children with mild to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ies could recall useful information in the forensic context. There have been, however, few overviews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and capacities of children's testimony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or developmental disorders in forensic context.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additional factors that migh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whether these may influence the quality of children's testimony based on the recent literature published on abroad. It should be guided and be helpful for further researches, particularly in terms of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children with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 including Down Syndrome, Autism Spectrum Syndrome, and Williams Syndrome, would consolidate our knowledge and provide professional practitioners with an empirical basis in order to structure their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children depending upon their particular profile of abilities and disabilities in reporting what they had personally experienced or witnessed.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orders, Down Syndrome, Autism Spectrum Syndrome, Williams Syndrome Child's Testimony